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2. 5. 31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동향

2022. 5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주요 동향	02
2. 국외 항만 주요 동향	09
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16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1 부산항만공사, 바르셀로나항 물류센터 6월 운영 시작
- 2 진도~제주 항로 '산타모니카호' 5월 7일 운항 개시
- 3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시멘트 하역·저장시설 설치사업 시행 허가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1 중국 최대 석탄 항만, 친황다오항이 위치한 하이강구 전역 봉쇄
- 2 미국, 러시아 선박의 미국 항만 출입 금지로 460척 영향권
- 3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항(Port of Durban), 정상 가동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1 중국 도시 봉쇄에 따른 항만 혼잡 및 선적 지연 발생
- 2 국제유가, Brent, WTI, Dubai, Oman 모두 하락
- 3 한국가스공사, 미국산 LNG 도입계약 체결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항만공사(BPA), 바르셀로나항 물류센터 6월 운영 시작¹⁾

- » BPA는 남유럽의 안정적인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르셀로나항만공사와 협력하여 배후부지에 물류센터를 건립,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힘
- '21년 9월부터 양 항만공사는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합작회사 'B2B Logistics'를 설립하고 국내외 주요 물류기업에게 물류센터 운영 위탁을 추진함
- 최종적으로 국내 물류기업인 태웅로직스와 프랑스 FM Logistic이 절반씩 운영할 예정임
- » 남유럽에 진출한 기업 혹은 진출 예정인 물류기업들에게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해당 물류센터는 국제공항 및 고속철도와 인접한 남유럽 복합운송 요충지인 바르셀로나항 배후단지인 Zal Port BCN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만㎡ 규모임

바르셀로나항 물류센터 위치



자료: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5.11.),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7535>(2022.05.16 검색)

②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공공시설 개방²⁾

- » BPA는 지난해 12월 문화공원 1호(2만 6천㎡)를 개방한데 이어 올해 5월 4일부터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을 개방한다고 밝힘
- 북항 1단계 재개발은 지난 '06년 부산신항 개발에 따라 유희화된 북항을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고자 '08년부터 시작된 사업임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5.11.),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7535>(2022.05.16 검색)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5.0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7490>(2022.05.16 검색)

- » 개방되는 주요 시설에는 폭 60m의 보행데크(부산역~재개발지), 문화공원 2호·3호, 경관수로(1.3km) 등 약 6만 평 규모의 공공시설임
- 또한 랜드마크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인 8만 9천 m² 면적에 도심 야생화단지(유채, 국화 등)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
- » BPA는 올해 말 완료 예정인 도로, 교량 등 막바지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복항을 아름다운 미항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2) 인천항

①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³⁾

- » '22년 2월에 신청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3년도 상반기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IPA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4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인천항의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약 43만m²에 해양문화관광, 복합도심, 광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8년까지 약 5,563억 원의 사업비(국비 580억 원, 시비 71억 원)가 투입될 예정임
- 장기간 사업시행 주체의 부재로 난항을 겪었던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21년도 8월에 IPA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22년도 3월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함

② 인천항만공사(IPA), 태양광발전소 통합관리를 위한 지능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⁴⁾

- » 지능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은 항만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플랫폼임
- IPA는 항만 내 총 5개소(북항 2개소, 내항 3개소)의 태양광발전소(2.86MW급)를 운영 중임
- 본 시스템을 통해 인천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IoT 센서를 부착해 설비정보를 수집하고 기상청 날씨 정보와 연계하여 발전소의 발전량을 전망할 수 있음
- 지능형 신재생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로 발전량 예측뿐 아니라 에너지 저장장치(ESS, Electric power Storage System), 태양광패널 등 관련 시설에 대한 24시간 스마트 감시체계 구축도 가능해짐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5.3.),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1709&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2> (2022.5.18 검색)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2.5.15.),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1780&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2> (2022.5.18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22년 1분기, 對미 컨테이너 교역량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⁵⁾

-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22년 1분기 광양항의 對미 컨테이너 교역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한 7만 6천 TEU를 기록했다고 밝힘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상하이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공급난 이슈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선박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런 가운데 광양항에서의 對미 컨테이너 선복량 확대가 수출입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으며, 특히 올해 1분기 對미 컨테이너 교역량 중 67%에 해당하는 5만 1천 TEU가 수입화물로, 한국의 對미 교역에서 광양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힘
- YGPA는 광양항이 對미 교역에서 제지, 펠릿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광양항의 수출입물동량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라고 평가함
- 또한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항만 체제로 정기선 운항에 차질을 입은 임시 컨테이너선을 광양항에 적극 유치한 노력 등이 대북미 교역량을 증가시키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힘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5.02),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7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1163&category=\(2022.05.12.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7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1163&category=(2022.05.12.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그린수소 물류허브 육성 공동 연구용역 착수⁶⁾

- ▶ UPA는 동서발전, 롯데정밀화학, SK가스, 현대글로벌스와 함께 울산항을 그린수소 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함
- 5개사는 작년 8월 울산항 중심의 해외 그린수소 수출입 공급망(생산/구매-해상운송-저장-유통-수요)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음
- 연구용역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수행하게 되며 울산항에 대규모 그린수소(암모니아) 터미널 구축을 위한 울산항 여건, 사업의 경제성·재무성 분석, 적정 사업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임
- 지난 11월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울산항의 청정수소 터미널 사업이 국내 대표 수소항만사업으로 발표됐으며, 정부는 작년 12월에 수립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 '50년 전체 수소 공급량의 약 80%를 수입할 것으로 밝혀 해외 수소 수입을 위한 항만 터미널이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음

6)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4.21),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0&dataId=14942\(2022.05.16.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0&dataId=14942(2022.05.16. 검색))



② UPA, '2022년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⁷⁾

» UPA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2022년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5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함

- 지원사업 분야는 '프로세스(절차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 '제품(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조직(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선)'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인식 부족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올해 신설한 'ESG 혁신형(친환경공정 및 근로자 환경개선 등)'임
- 지원대상은 울산·부산·경남 소재 중소기업으로, UPA는 심사를 통해 총 6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임
- UPA는 이번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에 다양한 혁신활동을 지원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ESG 경영을 통해 울산항의 협력기업과 상생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들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7)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4.28.),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4950(2022.05.16.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당진송악물류단지,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착공⁸⁾

» 평택·당진항 당진송악물류단지는 지난해 1단계 사전입주자 모집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3월부터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착공해 조성공사를 진행중임

- 당진송악물류단지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일원에 69만 5,700m²(21만여평)의 대규모 물류단지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KB증권에서 금융을 맡아 조성중임
- 충청권의 물류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물류단지이자 수도권 및 충남지역의 대표 유통형 물류단지로 성장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 향후 송악과 평택·당진항이 직접 연결되는 진입도로(연륙교)가 개통될 시 평택·당진항과 연계하여 항만물류 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와 인접해있어 빠른 도로진입이 가능하며 개통예정인 서해안복선전철 합덕역, 인주역과 인접해 개통시 철도이용에도 용이하여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8) 하우징헤럴드(2022.04.27.),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83>(2022.05.12. 검색)



6) 포항항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⁹⁾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1년 12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 약 25만 m²에 대하여 5년 단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해양생물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구역임
- 호미곶 주변 해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주서식처로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이며, 최근 해수온 상승과 해양산성화에 따라 이들의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이번 관리계획은 지역 현황 조사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해양수산부의 검토를 거쳐 수립할 예정임

9)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2.04.19),
<https://pohang.mof.go.kr/ko/board.do?menuidx=2855&bbsidx=80291>(2022.05.16.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실시¹⁰⁾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5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동해·묵호항을 대상으로 동해 신항만 건설공사 및 위험물 운송 선박의 출입항 등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함
- 동해 신항 건설공사와 관련된 예부선 10척의 화물과적 운송과 불법어로 행위, 항만시설 무단 사용 등 항만 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위반행위를 단속함
- 수상구역 내 미신고 위험물 하역 행위, 무신고·무허가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유해물 해상 투기 행위 등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함
- 위험물 하역 시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자체안전관리계획 미준수, 항만구역 내 불법어로 행위는 지속적인 단속 대상으로 공시함

10)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2.05.04.),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80529>(2022.05.16. 검색)



8) 목포항

① 진도~제주 항로 '산타모니카호' 5월 7일 운항 개시¹¹⁾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제주까지 최단거리인 진도~제주 항로에 초쾌속카페리 '산타모니카호'가 5월 6일 취항식을 갖고 7일부터 운항을 개시한다고 밝힘
- 진도~제주 항로는 지난 '20년 3월 개설된 신규 항로로 씨월드고속훼리(주)가 운항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운항 거리는 직항 101.9km(중간 기항지인 추자도 기항시 109.3km)임
- 여객선은 진도, 제주 간을 하루 2회 왕복하며, 운항 시간은 직항 시 90분(추자도 기항 시 120분)이 소요됨
- 한편 신규 취항하는 '산타모니카호'는 호주 인캣사에서 건조된 3,300톤급 초쾌속카페리(운항 속력 최대 42노트)로 여객정원은 606명이며, 차량은 승용차 기준 79대까지 적재 가능함
- 목포해수청 관계자에 따르면 '산타모니카호' 취항은 해상교통 편의 향상과 전남권과 제주 간 물류 수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2.05.04.),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80515>(2022.05.12. 검색)

9) 군산항

① 군산시, 군산항을 해상풍력산업 거점항으로 육성 추진¹²⁾

- » 군산시는 전라북도, 한국전력, 한국해상풍력(주), CJ대한통운, 세방 등과 함께 전북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의 추진과 군산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전북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고창~부안 해역에 8년 동안 14조 원을 투자해 사업면적 448km², 발전 규모 2.4GW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 지난 5월 10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물류 활성화를 위한 항만 정책지원과 항만시설 이용의 안전성 효율성 확보 협력, 부지확보 협력 등이 포함됨
- 본 업무협약을 통해 지자체-사업자-항만운행사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기대됨

12) 군산시 보도자료(2022.5.10.),<http://eminwon.gunsan.go.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 (2022.5.18 검색)



10) 마산항

①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시멘트 하역·저장시설 설치사업 시행 허가¹³⁾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마산항 동양부두 내 시멘트 하역·저장시설 설치사업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시행 허가함

- 공사시행자는 (주)삼표시멘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36개월이며 총 사업비는 176억 5천만 원임
- 건축면적 1,953.30㎡, 연면적 887.53㎡에 건축물 지상 1층 3동, 공작물(사일로, 하역시설 및 컨베이어벨트) 8동이 건설될 예정임
- 동양부두 내 시멘트 하역·저장시설 설치사업은 비귀속사업으로 본 공사를 통해 조성된 하역 및 저장시설은 (주)삼표시멘트에 귀속될 예정임

» 마산항 동양부두는 연장 150m, 접안능력 8,000DWT, 수심 10m, 연간 하역능력 1,026만 7천 톤으로 주요 취급화물은 시멘트임

- '21년 163만 7천 톤을 기록한 마산항 시멘트 물동량은 (주)삼표시멘트와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생산 공장에서 생산되어 옥계항 및 삼척항을 통해 출항, 마산항 동양부두와 한라부두를 통해 입항하는 전량 연안 물동량임

13)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2022.05.12.), <https://masan.mof.go.kr/ko/board.do?menuidx=3676&bbsidx=80693>(2022.05.16.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중국 최대 석탄 항만, 친황다오항이 위치한 하이강구 전역 봉쇄¹⁴⁾

- »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친황다오항이 포함된 하이강구 전역을 4월 28일 0시부터 통제한다고 밝힘
 -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하이강구에서 코로나19 양성자가 발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8일부터 전역을 통제하며 해제시점은 별도 통지하기로 함
- » 친황다오항은 중국 최대 석탄 항만으로 주로 북쪽 광산에서 생산된 석탄을 도로와 철도 등으로 항만으로 들여온 뒤 남쪽 해안 산업 중심지로 실어 보내는 역할을 함
 - 올 1분기 친황다오항은 약 5천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은 석탄 및 광석류임
- » 항만 관계자들은 도시가 봉쇄되었지만 원격 작업 등으로 석탄은 정상 운송된다고 밝혔으나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 항만으로의 물류 차질 및 항만 노동력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 또한 석탄 부족 시 화력발전 가동의 어려움으로 제조업 생산 공장의 전력 공급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¹⁵⁾
 - 이미 지난해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등의 영향으로 전력 위기를 경험한 바 있음

② 상하이항 리퍼 컨테이너 예약 재개¹⁶⁾

- » 중국 당국은 상하이시가 봉쇄 된 지 약 두 달만인 5월 11~20일 사이 이동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밝힘
- » 이 가운데 선사들의 리퍼 컨테이너 예약 및 위험 화물 수입 등 영업 재개가 이뤄지고 있음
 - 머스크 라인은 봉쇄 이후 6월 25일 처음으로 리퍼화물이 상하이항에 도착할 것이라 밝힘
 - CMA CGM의 경우 모든 상하이항 터미널에서 리퍼 컨테이너와 특수 화물 수입 등을 재개하였으나 와이가오차오 항만 지역은 부족한 인력과 선박 대기 시간 증가 등으로 여전히 화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 한편, 상하이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약 2,000개의 주요 제조업체를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로 지정하여 생산 재개를 허용하였으나 여전히 생산차질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해당 제조업체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근로자가 숙박을 하는 등 '폐쇄 루프' 시스템을 통해서만 생산이 가능하도록 함

14) Bloomberg(2022.04.2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4-28/china-locks-down-part-of-its-northern-hub-for-coal-shipping>(2022.05.16 검색)

15) 파이낸셜 뉴스(2022.04.28.), <https://www.fnnews.com/news/202204281819001842/>(2022.05.16 검색)

16) Container News(2022.05.13.), <https://container-news.com/shanghai-bound-reefer-bookings-resume-as-lockdown-set-to-end-20-may/>(2022.05.16 검색)

- 미국의 경우 5월 5일 기준,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미국 기업 중 15%만에 상하이에서 영업을 재개했다고 밝힘

③ 중국 항만, 도시 봉쇄 연장에 따라 항만 혼잡 지속¹⁷⁾

- » 중국의 코로나19 도시 봉쇄가 상하이에서 베이징 일부 지역을 포함한 더 많은 도시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북부 항만의 혼잡이 지속됨
- 중국 동부 주요 도시의 봉쇄 조치가 5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선박들이 대체 항만을 찾고 있으며, 이에 남부 항만에서도 혼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상하이항의 혼잡도는 지난 3월 초 이후 4월 25일 기준 30~40% 증가한 상태이나 작년 3분기의 최고치보다는 낮은 수준임
- 도시 봉쇄와 노동력 부족으로 중국 제조업 부문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출입 증가율도 전년 대비 감소함
- S&P의 AIS 데이터에 따르면 '22년 1분기 중국 항만에 입항한 선박의 적재용량은 11억 5천만 DWT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중국의 컨테이너 수출 화물 감소에 따라 컨테이너 및 소형 벌크선 운임이 하락하고 있으며, 철강, 알루미늄, 비료, 포장화물 등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로 운송되던 화물이 일반 벌크 화물로 운송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수출량 감소로 미국 등 글로벌 컨테이너항만의 혼잡도는 완화되고 있으나, 향후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물동량의 계절적 회복이 맞물릴 경우 항만 혼잡도가 크게 상승할 위험이 존재함

¹⁷⁾ Container News(2022.05.13.), <https://container-news.com/shanghai-bound-reefer-bookings-resume-as-lockdown-set-to-end-20-may>(2022.05.16 검색)



2) 아시아

① ONE, 중동-아프리카 신규 항로 취항¹⁸⁾

» 일본의 컨테이너선사인 오션네트웍익스프레스(ONE)는 5월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인도 서안을 연결하는 모잠비크-인도-중동서비스(MIM)를 시작한다고 밝힘

- 신항로는 아랍에미리트(UAE) 제벨알리라 인도 문드라, 모잠비크 마푸투 3곳을 셔틀 운항하는 독 특한 서비스임
- 오션나(OCEANA), 오넬라(ORNELLA) 등 1,7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이 해당 지역을 격주로 운항 할 예정임
- 노선은 제벨알리-문드라-마푸투-제벨알리 순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에스와티니(스와질란 드) 짐바브웨 등 내륙시장을 잇는 관문 서비스 역할을 제공할 계획임

② 인도, 코친항만의 환적허브 구축에 자금 지원¹⁹⁾

» 인도의 항만, 해운 및 수로부(MoPSW)는 스리랑카의 국가 디폴트로 인한 경제 붕괴위 기를 틈타 코친항만에 3억 루피(약 3,88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위를 강 화하고자 함

- MoPSW는 스리랑카의 정치적 혼란과 콜롬보항²⁰⁾의 혼잡으로 인도의 유일한 국제 컨테이너 환적 터미널(ICCT)인 코친항의 환적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코친항만 당국에 따르면, ICCT의 환적 물동량은 21년 8,394TEU에서 22년 3월 13,609TEU로 증 가함
- 코친항은 향후 물동량의 증가에 대비해 수심을 20m까지 늘릴 계획이며, ICCT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선박 관련 할인에서 화물 기반 할인 제도로 전환함
- 이러한 일련의 지원 및 제도개선은 인도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콜롬보항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 적 있음

18) ONE(2022.04.29),
[https://kr.one-line.com/ko/news/all-news/all-years/all-months\(2022.05.20.검색\)](https://kr.one-line.com/ko/news/all-news/all-years/all-months(2022.05.20.검색))

19) Port Technology(2022.05.10.),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india-to-fund-cochin-port-transshipment-hub-amid-sri-lanka-crisis/\(2022.05.22.검색\)](https://www.porttechnology.org/news/india-to-fund-cochin-port-transshipment-hub-amid-sri-lanka-crisis/(2022.05.22.검색))

20) 콜롬보항은 스리랑카 해운 화물의 90%를 다루고,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물류 거점항 임



③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지역에 컨테이너 항만 공동 건설 추진²¹⁾

- »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항만 공동 건설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동부 자바 지역과 달리 중부 자바 지역에는 켄달(Kendal) 산업 단지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스마랑(Semarang)에 탄중에마스(Tanjung Emas) 항만이 입지함
- 중부 자바지역에 두 번째로 건설될 신규 컨테이너 항만은 켄달 산업단지(Kendal Industrial Park) 인근에 27km² 규모로 40만 TEU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임
- 켄달 산업단지(Kendal Industrial Park)의 확장에 따라 향후 최대 150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주에 자카르타 중앙정부에 항만건설 계획 제안서를 제출함
- 신규 항만건설은 물류 및 운송비용을 절감하여 인도네시아 항만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1) Container News(2022.5.23.), <https://container-news.com/indonesia-singapore-to-jointly-build-a-container-port-in-central-java/> (2022.5.25 검색)

3) 미주

① 미국, 러시아 선박의 미국 항만 출입 금지로 460척 영향권²²⁾

- »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4월 28일부터 러시아 선박의 미국 항만 출입을 금지함
-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1일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러시아 국적선, 러시아 선주가 보유한 선박, 러시아 기업이 운항하거나 관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미국 항만의 출입 금지를 발표함
- 다만 예외적으로 '54년 제정된 원자력법에서 규정한 핵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물질 핵부산물 등을 수송하는 러시아 선박 중 대체할 수 없는 선박이나 선원 교대나 응급 의료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한 선박은 입항이 허용됨
- » 로이드 리스트(Lloyd's List)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460척의 러시아 선박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도함
- 국제항로에 투입되는 러시아 관련 선단은 총 2,717만 DWT이며, 국적은 라이베리아 1,049만 톤, 러시아 613만 톤, 키프로스 188만 톤, 몰타 164만 톤, 파나마 158만 톤, 마셜제도공화국 148만 톤이며, 우리나라에 등록된 러시아 선박은 43만 톤임
- 선종별로는 원유운반선이 가장 많은 19%이며, 벌크선 16%, 컨테이너선 14%, 정유운반선 12%, 석유화학제품운반선 9%, LNG선 8% 순서임
- 다만, 지난해 러시아 선박의 미국 기항 횟수는 약 1,800회로 미국 전체 해상 교통량의 3% 미만이며, 러시아 선박을 통한 화물수입 비중은 1% 미만으로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수출입 및 해상 교통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베셀즈밸류(VesselsValue)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국에 기항한 선박 중 러시아 선주가 보유한 배는 70척으로 선종별로 아프리카막스 탱크선 21척, 수에즈막스 탱크선 5척, 초대형 유조선(VLCC) 1척, 정유운반선 20척, 벌크선 16척, LNG선 7척임

22) 코리아워킹가제트(2022.04.28.),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4114\(2022.05.16. 검색\)](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4114(2022.05.16. 검색))

4) 유럽

① 벨기에, 앤트워프항-제브뤼헤항 공식 통합²³⁾

» 벨기에의 양대 항구인 앤트워프항과 제브뤼헤항이 4월 28일 앤트워프-브뤼헤항으로 공식 통합됨

- 이로써 앤트워프-브뤼헤항은 유럽 최대 수출항이자 최대 자동차 항만이 됨
- 앤트워프-브뤼헤항은 기존 두 항만의 장점을 통합해 물류사슬의 효율성, 신뢰성,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통합된 항만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이산화탄소 회수저장·재활용 등 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임
- 항만 통합을 통해 직접적인 일자리 7만 4천 개와 간접적인 일자리 9만 개뿐 아니라 약 210억 유로(약 27조 9,201억 원)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3) 이코노미스트(2022.04.29.),
<https://economist.co.kr/2022/04/29/chinaFocus/101002022042960000316.html>(2022.05.16.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서호주 정부, 포트헤들랜드(Port Hedland)항에 7,800만 달러 투자²⁴⁾

» 서호주 정부는 포트헤들랜드항의 일반 화물 전용 물류 허브인 럼즈던 포인트(Lumsden Point)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 7,8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함

- 럼즈던 포인트 개발 사업은 포트헤들랜드 내항에 육상 물류 인프라 구축, 연장 500m 규모의 부두 개발 및 방파제 건설 등을 포함함
- 서호주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럼즈던 포인트 개발 사업은 서호주 GDP를 95억 달러 증가시키고 연간 4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럼즈던 포인트의 주요 처리 화물은 리튬 및 구리와 같은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광물과 풍력 발전기 터빈 및 블레이드와 같은 재생 에너지 산업 관련 제품임

» 현재까지 럼즈던 포인트 개발을 위해 1억 4,300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지난 '21년 10월에 첫 번째 화물선이 입항함

24) Infrastructure Magazine(2022.04.17.),
<https://infrastructuremagazine.com.au/2022/05/02/78-million-funding-boost-for-port-of-port-hedland-works/>(2022.04.18. 검색)



럼즈던 포인트 개발 위치



자료: Free Country Map, 구글 어스(2022.05.17.), 포트헤들랜드, KMI 제작성

6) 아프리카

①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항(Port of Durban), 정상 가동²⁵⁾

» 지난 4월 1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콰줄루나탈(KwaZulu-Natal)의 심각한 홍수로 선적 활동이 중단되었던 더반항이 정상 가동됨

- 심각한 홍수로 인해 더반항 배후 도로에 가전제품, 통나무 등 홍수 잔해물이 있었지만 72시간 준설 작업 이후에 대부분의 홍수 잔해물이 제거됨
- 이번 홍수로 인해 정체되었던 수천 개의 잔여 컨테이너가 4월 26일 자로 모두 정리되었으며 더반항 컨테이너 터미널 가동률은 60%~100% 수준으로 회복함
- 이번 홍수로 인해 콰줄루나탈주에서 440명 이상이 사망하고 6억 7,488만 달러의 기반 시설이 손상된 것으로 파악됨

25) Reuters(2022.04.19.),
<https://www.reuters.com/world/africa/safrica-says-durban-port-functional-backlog-be-cleared-days-2022-04-19/>
 (2022.05.17.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① 중국 도시 봉쇄에 따른 항만 혼잡 및 선적 지연 발생²⁶⁾

- » 코로나19 대유행의 혼란에서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한 해운·항만 시장이 중국 주요 도시 봉쇄로 인해 항만 혼잡 및 선적 지연이 다시 발생하고 있음
 - 중국에서 출발한 선박이 세계 주요 항만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난 1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12월부터 상하이~롱비치항 노선의 시간이 감소되는 등 완화 조짐이 있었으나 3월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함
 - Project44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중국 상하이 봉쇄로 미국, 유럽 등 주요 항만 간 선적 지연이 4배로 증가했다고 밝힘
 - S&P 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4월 25일까지 상하이항에 대기하는 선박 수는 384척으로 한 달 전보다 27% 증가함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이미 글로벌 공급망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국 도시 봉쇄로 더 큰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함
 - 일부 중국 도시들이 코로나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글로벌 해운·항만 시장은 여름까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함
- » 미국 서플라인 체인 업체들은 지난해 겪었던 극심한 항만 혼잡과 지연에서 서서히 회복 중인 미국 항만에게 새로운 혼란은 더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26) CNN(2022.05.06.), <https://edition.cnn.com/2022/05/06/business/china-lockdowns-global-port-chaos-supply-chains-intl-hnk/index.html>(2022.05.16 검색)



2) 양곡

① 2분기 국제 곡물수입단가 전분기 대비 상승 전망²⁷⁾

▶ 흑해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4월 곡물 수입단가는 밀과 대두의 경우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옥수수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상승함

- 식용 밀(420달러/톤)과 채유용 콩(578달러/톤)의 수입단가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 3.8% 하락함, 반면 식용 옥수수의 4월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2.6% 상승한 358달러/톤을 기록함
- 사료용 밀의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0.7% 하락한 329달러/톤, 대두박의 수입단가는 전년대비 5.2% 하락한 473달러/톤인 반면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소폭(0.8%) 상승한 327달러/톤을 기록함
- 식용 수입단가지수(CIF, 원화기준)는 159.9로 전분기 대비 11.3% 상승 전망, 사료용 수입단가지수(CIF, 원화기준) 역시 전 분기 대비 10.7% 상승한 158.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27)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 월보 5월호 (2022.4.29.),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581/page/1 (2022.5.20 검색)

3) 시멘트

① 쌍용C&E-레미콘 업계, 시멘트 가격 톤당 9만 800원 합의²⁸⁾

▶ 지난 4월 15일 쌍용C&E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시멘트 판매가격을 톤당 9만 800원(기존 7만 8,800원에서 1만 2,000원 인상), 슬래그 시멘트는 톤당 8만 3,000원(기존 7만 1,900원에서 1만 1,100원 인상)에 공급하기로 합의함

- 지난 2월 쌍용C&E는 기존 판매가격의 18.0%를 인상한 톤당 9만 3,000원의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당초 요구보다 판매가격을 낮춰 15.2% 인상한 9만 800원에 공급하기로 합의함
- 타 시멘트 제조사(성신, 한일 및 한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폭우로 인한 호주의 공급 부족 사태 및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원가 상승을 이유로 쌍용C&E의 가격 인상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

28) 한국건설신문(2022.04.28.),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43>(2022.05.16. 검색)



4) 모래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²⁹⁾

» 5월 6일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한 바다 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함

-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골재채취 및 채취단지의 지정을 지방해양수산청장 관할에서 제외되는 해역이용협의 등의 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것임
- 본 개정령은 바다골재 채취사업과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포함하며 골재 채취 및 풍력 발전 사업을 위한 해역이용협의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임

29)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 (2022.05.06.),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298?mappingLbclid=&announceType=\(2022.05.16. 검색\)](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298?mappingLbclid=&announceType=(2022.05.16. 검색))

5) 석탄

① 중국,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급증³⁰⁾

» 중국 언론은 4월 기준, 중국에서 러시아산 원료탄을 전년 동월 대비 약 2배가 넘는 171만 톤을 수입했다고 보도함

- 중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4월 기준 러시아산 원료탄을 171만 톤 수입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4월 중국의 러시아산 원료탄 수입은 지난해 동월(78만 1,287톤)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제품 수입금지 조치가 8월부터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EU의 러시아산 원료탄 구입을 꺼리는데에서 기인함
- 한편,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도 대량 수입하고 있으며, 5월 역대 최고인 일일 110만 배럴을 사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30) 뉴시스(2022.05.21.),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1_0001879811&clID=10101&pID=10100\(2022.05.23. 검색\)](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1_0001879811&clID=10101&pID=10100(2022.05.23. 검색))



6) 철광석

① 중국, 1~4월 철광석 수입 7.1% 감소³¹⁾

» 중국 세관당국에 따르면 '22년 4월 중국의 철광석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했으며, 1~4월 기준 철광석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함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 부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한 1~2월 생산 규제 및 물류 대란 여파가 겹치면서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 감소함
- 4월 중국 정부가 경제 및 물류 중심지인 상하이와 고로 업체들이 밀집되어있는 허베이성 등에 강력한 봉쇄를 실시해 조강생산이 감소하며 철광석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분기에는 중국 정부가 인프라 및 제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부양책으로 전체 철강재 및 철광석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1) 철강금속신문(2022.05.16.), <http://pdf.snmnews.com/PDF/REAL/2022/04/13/PS010413010100301B0001.pdf>(2022.05.16. 검색)

7) 기타광석

① 동, 니켈 등 주요 광물가격은 미연준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에 따른 달러강세로 하락세를 기록³²⁾

» 미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에 따른 미달러화 강세 및 중국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조치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로 비철금속 가격 하방압력이 발생함

- 유럽중앙은행(ECB)은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추진할 전망으로 투자심리 위축가능성이 제기됨
- 한편 중국내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중국의 4월 동 수입량은 46만 5,330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4% 감소, '21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갱신하는 등 수요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5월 2주차 전기동과 니켈가격은 각각 전주대비 3.1%, 8.4% 하락세가 지속됨

- 전기동은 LME 재고량이 17만 3,350톤으로 전주대비 6.8% 증가, 9주 연속 증가하면서 수급긴장 완화로 가격하방압력이 심화됨
- 니켈의 경우 LME 재고량이 7만 2,982톤(22년 3월 이후 8만 톤 하회)으로 빠듯한 수급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아연은 8만 8,655톤으로 전주 대비 5.0% 감소, 8주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32)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2.05.16.), 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2.05.17. 검색)



8) 목재

① 산림청,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실시³³⁾

▶ 산림청은 지난 4월 22일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함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 이번 교육에는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포함됨

33) 산림청 보도자료(2022.04.21.),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69913&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dx=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2.05.12.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69913&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dx=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2.05.12. 검색))

9) 고철

① 중국, 1,367만 톤 규모 전기로 16기 신설³⁴⁾

▶ 중국 정부는 올해 1~4월 중 연간 생산능력 1,367만 톤 규모의 전기로 16기 신설을 승인함

- 이번에 신규 인가된 전기로는 '22~'24년 중 가동에 들어가며, 생산능력 1,472만 톤 규모의 기존 노후 설비는 폐쇄할 예정임
- 폐쇄되는 생산설비 중 고로-전로강 생산은 872만 톤 규모로, 중국 내 고로 방식의 제강 공정이 전기로 방식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음
- 다만 신규 인가된 전기로의 생산능력에 비해 폐쇄 설비의 생산능력이 더 크기에, 약 105만 톤의 조강 생산능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34) 철강금속신문(2022.05.16.), <http://pdf.snmnews.com/PDF/REAL/2022/05/16/PS010516010100101A0001.pdf>(2022.05.16. 검색)



10) 철재

① 포스코, 유럽 하이퍼루프 센터에 튜브용 열연강재 공급³⁵⁾

- ▶ 포스코가 하이퍼루프 튜브용 강재 'PosLoop355'를 네덜란드 하트(HARDT)사에 납품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함
- 하이퍼루프는 대형 진공튜브 내 자기부상 캡슐을 시속 1,000km 이상의 초고속으로 운행하는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임
-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하트사가 네덜란드 그로닝겐주에 설치하는 '유럽 하이퍼루프 센터'의 시험노선 450m 구간에 275톤을 공급할 예정임
- 포스코는 '20년부터 하트사가 주관하는 네덜란드 국책과제인 HDP(Hyperloop Development Program)에 타타스틸 네덜란드와 함께 하이퍼루프 전용 강재 및 구조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함
-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번 납품을 시작으로 '25년까지 시험노선 2.7km 구간에 약 1,800톤을 추가 공급할 예정임
- 또한 포스코는 이번 유럽 하이퍼루프 센터 시험노선 강재 공급을 시작으로 국내외에 진행 예정인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에 강재 공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35) 철강금속신문(2022.05.16.), <http://pdf.snmnews.com/PDF/REAL/2022/04/11/PS010411010101201A0001.pdf>(2022.05.16. 검색)

11) 자동차

① '22년 3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³⁶⁾

-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3월 내수는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의 대기수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생산 물량 감소가 계속되며 전년 동월 대비 21.2% 감소한 11만 1,596대 판매를 기록함
- 조업일당 판매대수는 5,314대로 전년 동월(6,436대) 대비 17.4% 감소함
-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판매 호조로 친환경차의 판매 비중은 전체 국산자동차 중 22.6%에 달하며 전년 동월 대비 32.2% 증가한 2만 5,237대를 기록함
- ▶ 3월 수출은 생산 차질로 인한 출하량 감소가 계속되며 전년 동월 대비 8.9% 감소한 17만 7,268대를 기록함
- 조업일당 수출대수는 8,441대로 전년 동월(8,844대) 대비 4.6% 감소함
- 친환경차 수출은 전체 자동차 수출 비중의 22.5% 차지하며, '21년 평균 19.8%, '20년 평균 14.4%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3만 9,947대를 기록함
- 완성차 수출액 또한, 친환경차 수출액이 7개월 연속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차질 및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5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하여 9.7% 감소한 39억 7천 달러를 기록함

36)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 (2022.04.25.),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51&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2.05.12. 검색)

» 3월 생산은 지속되는 반도체 공급 부족과 더불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와이어 링 하네스 등의 부품 조달 차질, 일본 지진으로 반도체 공장이 운영 중단되는 등 공급망 악재의 잇따른 발생으로 생산량 조정이 불가피하여 전년 동월 대비 9.5% 감소한 30만 2,156대를 기록함

(단위 : 대, %)

'22년 3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률		
	연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전월비	동월비	1~3월
내수	1,440,786	141,582	359,866	103,806	111,596	309,789	7.5	-21.2	-13.9
수출	2,040,572	194,562	546,155	165,323	177,268	522,964	7.2	-8.9	-4.2
(완성차수출액)	46,465	4,397	11,914	3,839	3,972	11,901	3.5	-9.7	-0.1
생산	3,462,499	333,869	908,840	263,959	302,156	837,169	14.5	-9.5	-7.9
(부품 수출액)	22,776	2,176	5,785	1,783	2,177	6,022	22.1	0.0	4.1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2.04.25.),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51&menu_id=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2.05.12. 검색)



12) 잡화

① '22년 3월 국내 기계 산업의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한 186억 6천만 달러, 수입 금액은 8.3% 감소한 114억 2천만 달러 기록³⁷⁾

- 3월 기계 산업 수출은 전기기계업(-15.8%)과 수송기계업(-13.9%)부문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일반기계업(+3.5%), 정밀기계업(+5.7%), 금속제품업(+12.7%)은 전년 대비 증가함
- 3월 기계 산업 수입은 정밀기계업(-18.7%)과 전기기계업(-6.1%), 부문 등 전 분야에서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함
- '22년도 1분기 기계산업 수출 금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 5.7% 감소하였으며 수입도 2.8% 감소함
- 수출 부문에서는 전기기계업(-17.8%)과 수송기계업(-12.0%)이 많이 감소 하였으며 수입은 일반기계업(-5.9%)과 정밀 기계업(-14.2%) 부문이 전분기 대비 감소함

(단위: 백만 달러, %)

'22년 3월 기계 산업 업종별 품목 동향

구분	'22. 3				'22. 1~3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 산업(합계)	18,661	-7.2	11,419	-8.3	52,308	-5.7	32,102	-2.8
일반기계업	5,006	3.5	3,910	-3.7	13,591	7.4	10,560	-5.9
전기기계업	2,938	-15.8	1,958	-6.1	8,247	-17.8	5,742	0.3
정밀기계업	1,812	5.7	2,492	-18.7	4,884	3.7	6,818	-14.2
수송기계업	7,945	-13.9	2,486	-5.1	22,641	-12.0	7,327	11.8
조선	1,416	-37.8	96	-25.6	3,781	-46.9	522	-1.9
금속제품업	961	12.7	573	-7.0	2,945	25.2	1,656	4.8

37)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4월호(2022.5.13.), [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2.5.20. 검색\)](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2.5.20. 검색))

자료: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4월호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유류·화학공업생산품

① 5월 2주차 국제유가, Brent, WTI, Dubai, Oman 모두 하락³⁸⁾

» 5월 9일부터 12일까지 Brent, WTI, Dubai, Oman의 유가 주간 평균 가격은 전주(5월 2일~6일) 대비 배럴당 각각 3.36, 3.01, 2.17, 2.12달러 하락함

- EU의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조치 합의 지연, 중국의 봉쇄조치 장기화에 따른 수요 전망 하향, 미 달러 강세 등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단위: US\$/bb)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주간 평균 가격			일일 가격			
	5월 1주 (5.2~5.6)	5월 2주 (5.9~5.12)	전주 대비	5월 9일(월)	5월 10일(화)	5월 11일(수)	5월 12일(목)
Brent	109.20	105.84	-3.36	105.94	102.46	107.51	107.45
WTI	106.68	103.67	-3.01	103.09	99.76	105.71	106.13
Dubai	106.39	104.22	-2.17	107.99	103.13	102.94	102.81
Oman	106.37	104.25	-2.12	107.97	103.14	103.03	102.87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유가(2022.05.13.),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5.16. 검색)

② 한국가스공사, 미국산 LNG 도입계약 체결³⁹⁾

» 한국가스공사(KOGAS)는 지난 4월 21일 종합에너지기업인 BP와 '25년부터 LNG를 최대 18년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 도입 규모는 연 158만 톤으로 국내 연간 소비량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지난 7월 카타르와 체결한 장기 계약에 이은 성과임
- 이번 계약은 최근 고유가 상황 및 국제 LNG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내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38)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유가
(2022.05.13),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5.16. 검색)

39) 한국가스공사 보도자료(2022.04.22.),
<https://www.kogas.or.kr:9450/portal/selectBbsNttView.do?key=2035&bbsNo=239&nttNo=44093&searchCtry=&searchCnd=all&searchKwd=&pageIdx=1>(2022.05.16. 검색)



③ 심각한 탄산 부족 사태, 올해 내내 이어질 전망⁴⁰⁾

» 석유화학사 플랜트의 정비 돌입과 최근 수소 제조 시 천연가스를 이용하면서 탄산 공급이 감소함

-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울산, 대산, 여수, 나주 등에 위치한 석유화학사들이 3~6월에 걸쳐 플랜트 정비에 나서면서 부산물로 나오는 탄산의 발생량이 감소함
- 태경케미컬, 선도화학, 창신화학, 동광화학, SK머티리얼즈리뉴텍 등이 탄산을 생산하고 있으나 원활하게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임
-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나프타의 가격이 오르면서 수소 제조 시 나프타 대신 천연가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탄산의 발생량이 2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됨

» 탄산 수요 증가와 석유화학사 플랜트의 정비 돌입으로 당분간 탄산 공급 부족이 지속될 전망이다

- 석유화학 플랜트의 유지보수가 봄-가을에 집중돼 있고 5월부터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분간 탄산의 공급 부족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탄산은 조선, 반도체, 자동차, 식품, 의료, 농업 등 국내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어 탄산이 부족할 경우 선박의 용접, 반도체 제조공정, 의료, 식품 등의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됨

40) 가스신문(2022.05.04.),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47>(2022.05.16. 검색)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최석우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2. 5. 31

편집 겸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